보도시점 (전매체) 추후 공지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 첫째, 9월 황금녘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 둘째,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셋째, 명절 전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7.2조원 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1일(목)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 (지류형) 100 → 130만원, (카드형·모바일) 150 → 180만원

셋째,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7,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000억원), 기술보증기금(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1조 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3조 6,000억원)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하여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책임자	과 장	황영호 (044-204-732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344)
	소상공인정책관 소비촉진기획총괄반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44-204-7240)
		담당자	사무관	이화정 (044-204-7292)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장수환 (044-204-789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